

Story 07

김 * * 화학공학부 2020년 졸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품질기술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 ▶ **직무** 품질기술
- ▶ **스펙** 학점: 3.61
토익: 830점 / 오픽: IM2
- ▶ **공모전** 창업아이템경진대회[입상]
Innovation Fair Start-up 경진대회[장려상]
전국 화학공학회 경진대회[동상]
아이디어 리얼라이즈 공모전[최우수상]
신산업아이디어 경진대회[은상]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기술투자유치상/장려상]
- ▶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
초등학교 과학의날 행사 개최
버디프로그램 2회
- ▶ **기타** 학부 학술동아리
- ▶ **자격증** 화공기사
ERP정보관리사 생산
6sigma GB





대학생활 스토리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전공 대다수의 학생들처럼 단순히 과학을 좋아하여 입학하였다는 이유가 가장 컸기에 전공과목에 어려움이 많았고, 학점 또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1학년은 대학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다 특별한 활동도, 특별한 목표도 없이 지나버렸습니다.

2학년부터는 달라지고 싶어 학부 내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특화된 동아리로 아침 영어활동을 필수로 하여야했고, 왕복 2시간의 등하갯길을 가진 제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모전 활동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공모전에 나가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상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었지만 목적이 확고했고, 열정적인 팀원들과 함께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학년 때는 전공 프로젝트가 많아 마지막까지 계속 참여하진 못했지만 2,3학년은 **공모전에 나가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등 이론을 벗어나 실험해 보며 총 6회 수상을 할 수 있었고**, 취업 준비를 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팀 활동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꾸준하게 한 활동으로는 영어회화가 있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멘토링을 통해 영어회화가 중요함을 배웠고**, 멘토링 선생님의 소개로 국제협력과에서 운영하는 버디프로그램(매칭된 교환학생과 친구가 되고,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회화 실력이 굉장히 부족했기에 언어교육원의 영어회화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2단계부터 6단계까지 1년 넘게 수강하였고,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특정 시간에 참석해야했기에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수강할 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하였습니다. 그렇게 회화 연습을 거듭하여 버디프로그램에 2회 참여하면서 필리핀 친구들과 미국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회화를 연습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다양성(각 나라마다의 성향 등)같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을 만큼 소중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정형화된 회화가 아닌 실생활 회화를 더 배우고 싶다면 버디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대외활동을 참여한 것도 인턴이나 현장실습을 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는 하였지만 다른 자격증 준비에 오히려 준비도 하지 못하여 점수도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격증도 막 학기가 돼서 부랴부랴 준비하며 스펙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취업 준비를 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며 주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했던 공모전과 영어회화 등을 활동의 계기, 이를 이론 과정, 이를 통해 배운 점, 나의 직무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잘 정리하여 자기소개서에 적었으며 면접의 꼬리질문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이기엔 영어면접은 필수지만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한 것이 큰 점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했던 경험 중에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것들을 느꼈는지 서술하십시오. (800자 제한)

저는 대학교 3학년 공모전을 준비하는 '오토케'팀의 팀장으로서 활동하며 팀원들과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교내 대회 2회 수상을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화학 공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공모전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통해 이를 향상시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에 2학년부턴 팀원으로서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고, 3학년이 되어 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주 1회 만남을 가지며 2개월간 꾸준한 브레인스토밍을 이루었고, 저는 리더로서 조율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은 모두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모색했습니다. 반복적인 회의 결과 '복사냉각' 개념과 '여름철 더위로 인한 전기 및 실외기' 문제를 접목해 '실외기가 필요 없는 냉풍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회성 도전이 아닌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목표인 만큼 첫 아이디어 시안을 신산업아이디어경진대회에 참여하여 발표하였고, 여기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실험과 자료 제작에 시간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개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일정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알아준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회 수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고안, 실험 방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적절한 조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간 공모전을 준비하며 제가 배운 것은 이러한 것을 조율하는 '밀고 당기기'입니다. 위 경험은 리더로서 이를 직접 해 본 소중한 경험이며 앞으로 팀 활동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학습한 주요 전공과목은 무엇이었으며, 학습 결과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800자 제한)

화공품질관리를 수강하며 교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품질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실패했던 주제들의 근본 원인을 통해 새로운 주제를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가장 핵심인 문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수많은 불편사항을 scoring 기법으로 심각성, 기한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던 2가지 주제 모두 중간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이를 위해 쏟은 6주라는 시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총 15주라는 기간제한에 모두 초조해진 나머지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팀원과 함께 힘쓴 6주라는 시간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실패했던 주제를 불편사항으로 생각하고 원인을 찾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주제가 '공과대학 불편사항 건의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만족도 개선'입니다. 그 이유는 실패한 주제의 원인이 학생회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편사항을 건의할 곳의 불분명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11일간의 시행 동안 78건의 불편사항을 수집하고, 조건이 충족된 31건을 담당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시그마 수준을 0.12시그마 수준까지 개선하였고**, 남자 화장실 가림막 설치 및 화장실 몰래카메라 검사 등이 시행되고, 플랫폼 구축에 대해 교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수행은 실패가 기회가 됨을 몸소 깨닫게 해주었고, 무의미한 시도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해당 직무는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과정에는 의미가 있음을 배웠기에 문제를 해결함에 지치지 않는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3. 본인이 극복했던 문제나 어려움 중 가장 슬기롭게 해결한 것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당시의 상황과 과정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800자 제한)

저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한국 문화를 알리자'라는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실패하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교환학생과 친구가 되는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한편으로 유창한 영어 실력이 아니기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2학년 1학기 첫 도전을 하였고, 면접에서 큰 좌절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영어 강자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버린 나머지 준비해온 것의 반의반도 말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름방학부터 언어교육원 영어회화 2단계를 수강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매일 2시간씩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렇게 2학기엔 필리핀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전 회화라는 장벽으로 번역기에 자주 의존하였고, 미숙한 모습으로 우수 버디가 될 수 없었습니다. 3학년은 재정비 시간을 가지기 위해 7주간 운영되는 회화수업을 총 5회 참여하여 3단계부터 마지막 6단계까지 수강을 하였습니다. 4학년 1학기보다 향상된 모습으로 미국 친구를 만나 무등산도 오르고, 한국을 방문한 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관광하는 등 도움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위 경험을 통해 도전이 원하는 않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꼭 입사하여 이러한 끈기를 품질시스템을 최상위 레벨에 도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품질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4. 단체생활을 하는데 있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800자 제한)

품질기술자는 제품에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정확하고, 재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מן 제조 공정의 반응기의 길이와 직경, 튜브의 개수 결정 등을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결하는 강점을 발휘하여 시뮬레이션 에러를 해결**하였습니다. 불충분한 문제 조건으로 다른 조는 한 가지 변수를 고정하

고, 반응기의 부피를 결정하였지만 저는 변수에 의한 모든 연관성을 찾고자 조교님께 부탁해 저녁에 **아스펜 강의실을 빌려 5일간 4시간씩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였고, 시간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속도가 더디기에 **증류탑 스펙 분석을 위한 DSTWU의 농도, 회수량의 비율별로 excel 차트를 작성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번 더 RadFrac 환류비, 단수에 대한 excel을 작성한 후, 분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과목 최종 발표를 들은 교수님께서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응기와 증류탑을 설계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고, 체계적인 파일 정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본받아 완성도는 높이고, 시간은 단축할 줄 아는 질을 우선시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저의 방식은 작은 결함에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생산라인에서 품질 엔지니어로서 근무하며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및 해결하여 제품의 품질은 높이고,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5. 앞으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800자 제한)

고객사가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시행하고, 더욱 향상된 품질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품질기획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입사 직후,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배우며 팀 내에서 잡무를 담당하겠습니다. 협력사와의 통화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며 검사 체계에 대해 익히겠습니다. 경력이 차츰 쌓인다면 공정 Data를 분석 및 가공하고, 제품 검수 등 실무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규격, 제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량 분석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년 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키운 능력을 발휘하여 타 부서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책임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은 품질을 목표로 타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제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책임자로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이며 동시에 영어 회화 등 자기계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10년 후, 꾸준히 진행한 자기계발의 능력을 발휘하여 외부부서 또는 타 지역 생산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겠습니다. 품질 업무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품질기호나 업무를 담당하며 검수 과정에 사용할 방법을 연구하거나 본사 또는 고객사로부터의 제품 기획 및 품질 목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업계의 기술 난제를 앰코코리아만의 선진적인 기술력을 발휘하여 해결하고, 고품질의 패키징 및 테스트 시행으로 고객사와의 기술적 파트너로서 성장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입사지원경험 (엠코코리아 품질기술)

1. 인·적성 검사 후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에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인 SIAT 시험 링크를 통해 들어가 적성검사 40분, 인성검사 20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성검사는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사고 영역이 모두 출제되며 모든 영역이 뒤섞여 나옵니다. 언어의 경우 장문은 없으며 문장의 순서 배열, 단어의 뜻 비교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영역의 경우 GSAT와 조금 느낌이 다르며 아이큐 테스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가 가능한데 이를 풀어보면서 느낌을 파악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촉박한 편이니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패스해봤다가 푸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MMPI-2'라는 2차 인성검사가 이루어집니다. 6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빠르게 풀 수 있었고, 저는 40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360문항이기에 굉장히 집중력을 요했으며 앞서 했던 사람인 인성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검사는 인사담당자께서 화상카메라를 통해 지켜보십니다. 자신을 정면으로 촬영하던 면접과 달리 사이드 방향에서 나와 진행하는 시험의 화면이 모두 나오게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노트북 2대를 사용하거나 휴대폰or태블릿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사용기계에 대해서는 면접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면접후기(비대면 면접)

1차(면접)인(적성)최종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COVID-19로 인해 모든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Google Meet**를 활용하여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화상이기에 방심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리나 책상 아래 내려놓은 손은 신경을 안 쓰니 굉장히 심적 부담이 덜하지만 그만큼 화상카메라 세팅에 신경써야합니다. 우선 노트북이 다소 송신이 느리기 때문에 태블릿과 휴대폰에도 화상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아서 차선택을 마련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태블릿이 가장 좋습니다. 송신도 빠르고, 카메라 앵글 맞추기도 편하고, 화면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노트북으로 처음에 시도하였지만 화면이 끊긴다는 피드백이 있어 빠르게 태블릿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세팅 관련 몇 가지 팁입니다.

1) 카메라

핸드폰, 태블릿의 경우 옆으로 기기를 눕히고 보는데 이때 화면을 응시하면 내 눈이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됩니다.

저의 경우 이런 점을 확인하고 앵글을 세로로 세워서 했는데, 이런 경우도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노트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화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화질 좋은 웹캠(중국나라에서 판매)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 너무 가깝게 앵글 잡지마세요. 실제면접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조명

일단 형광등 아래서 진행하면 화면상 굉장히 얼굴이 어둡게 나옵니다. 이러면 면접관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고, 만약 너무 어두워져버리면 나의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스탠드나 휴대용 라이트를 이용해서 화면 앞쪽에 내 얼굴을 향해 조명을 비춰보고, 캠을 통해 미리 꼭 확인해보세요. 괜히 BJ들이 조명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굉장히 큼니다.

3) 마이크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 정품 유선이어폰을 사용하였습니다. 1차 때는 유선이어폰, 최종 때는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였는데 둘 다 음질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어폰으로 해결이 되어서 넘어갔지만 만약 이어폰 상태가 안 좋다면 USB 핀 마이크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 말할 때는 면접관이 말하고, 1-2초정도 쉬었다가 말하세요. 실수로 면접관의 말을 끊지 않도록!!! ★

4) 외관

① 보통 검은 정장을 입고 진행하기 때문에 배경에 신경 쓰세요. 배경이 너무 어둡다면 내 몸과 배경이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저는 방에서 진행할 때는 밝은 그레이의 커튼을 뒤에 쳤습니다. 스튜디오 카페에서 진행할 경우 방음이 잘되는 곳이 좋습니다.

②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앵글과 앵글 주변에는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하는 건 필수입니다.

③ 의자는 바퀴가 없는 의자가 좋습니다. 내가 신경을 쓰더라도 의자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높이 조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바퀴 있는 의자를 썼지만 다리로 고정하고, 이 점을 신경만 쓴다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④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될 경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카메라를 응시하세요. 면접관에게 모든 면접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도 신경써야합니다.

카메라, 이어폰 등 투자할 것도 많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염병으로 인해 화상면접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면접 보러가는 교통비를 여기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차 면접(4:2, 면접관 4명, 1시간)

2명의 면접자에게 공통질문이 오고, 자기소개서 및 지원서에 따른 개별 질문도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에 없는 내용으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 엠코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 6sigma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품질과 관련된 용어인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을 최근 많이 극복된 COVID-19와 관련하여 말해보세요.
- 6시그마가 품질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설명해보세요.
- 상사가 나에게 부당한일을 시킨다면 그 일을 할 것인가요? 거부할 것인가요?
- 열역학 제2법칙이 뭔가요?
- 나는 이런 사람이랑 정말 일을 안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요?
- 영어로 준비해온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① 저는 버디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영어로 부가적인 이야기를 설명 드렸고, 2-3개 정도 영어로 꼬리질문을 하셔서 대답하였습니다.

② 자기소개를 영어로 말하자 베스트이든 워스트이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람이 누군지,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 본인의 전공이 지원직무, 회사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 엠코 면접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엠코에 대해 조사했을 텐데 독취사나 비슷한 카페 같은데서 부정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있나요?
- 동일한 맥락에서 엠코의 취업 공지나 조사하던 중 좋았던 점은 무엇이 있는지?
- 마지막으로 엠코가 B2B기업이다 보니 자료가 많이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조사하며 궁금한 점은?

우선 영어면접의 경우, 일단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고, 꼬리질문도 당황하지 말고 1-2문장이라도 말하면 됩니다. 회사의 단점을 물어보는 경우는 너무 치명적인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품질 직무 자체가 트러블에 민감한 만큼 다소 어려운 직무인 것을 이용하여 독취사에서 엠코 품질직무가 힘들다는 내용을 봤지만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어느 분야에 가도 힘든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선택한 것이기에 저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뉘앙스로 패기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2) 2차 면접

- 자기소개
- 동기로 두 분이 같이 입사를 했다는 가정 하에 만약 상사가 나에게만 매일 저녁에 남아서 업무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 회사 몇 년이나 다닐 예정입니까?

-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위치까지 오르고 싶어요?
- 영어질문
 - ① 리더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영어로 말해보세요.
 - ② 인턴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어떤 성격이라고 들었는지?
- 애플에 대해 조사했던 내용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 만약 품질에서 일하다가 극도로 지쳐버렸다. 그러면 다른 직무로 갈 것인가 다른 회사의 품질 직무를 갈 것인가? (회사에 대한 애정vs직무에 대한 애정)
- 어린 시절도 괜찮으니 무엇인가에 몰두해본 경험에 대해 말해보세요.
- 애플의 품질정책이 뭔지 아세요?
-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하고 놀아요?
- 상사가 나에게만 계속 일을 시킨다. 할건가요? 말건가요?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일단 최종면접에서 영어면접은 완전히 버벅거렸습니다. 품질 직무가 때로 고객사와 응대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회사에 대해 조사한 대로 말해보라는 질문은 최선을 다해 전부 말하였고, “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네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당황했는데 중간에 칭찬을 해주셔서 다시 멘탈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상면접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면접관님께서 대답을 하면 “이런 성향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번 정리해주셨고, 덕분에 전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두괄식으로 말해도 상대방과 저의 대답의 동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또한, 8번, 9번, 11번 질문 등에는 대답을 들으신 후 이러한 의도로 혹은 이러한 점을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해보았다고,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임원면접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온라인면접에 후기가 많이 없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화상면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